

## 시편 119편과 145편에서 나타나는 절 단위 평행법에 관한 비교 연구\*

임성권(장신대)

### 1. 들어가는 말

고대 히브리 시문에 사용된 가장 두드러진 표현법 중 하나는 바로 평행법이다.<sup>1</sup> 평행법적인 상응은 보통은 절 내에서 반절(half verse) 단위

\* 본 논문은 시편 119편에 대한 필자의 학위 논문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토대로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이라는 본문 현상에 대한 관심의 연속성을 갖는 가운데 시편 145편에서 나타나는 절 단위 평행법 현상에 그 논의를 집중, 발전시킨 형태의 논문이다. 지면 관계상 학위 논문에서 논의한 바, 시편 119편에 나타나는 절 단위 평행법의 실제 사례들을 다루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약술한 후, 절 단위 평행법의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시편 145편에 집중하여 다루었다. 119편의 절 단위 평행법에 대한 사례들은 필자의 다음 글을 참조하라. 임성권, “시편 119편에 대한 평행법적 의미 해석: <토라트 아도나이>가 이끄는 경건의 길”, (미간행신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21), 1-388; 임성권, “[나의 박사 논문을 말한다] 시편 119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장엄한 기도”, 『기독교사상』 vol.778 (2023년 10월), 145-159.

1 김진규는 구약성경 대부분은 고전 수사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기록된 문헌들이므로 구약성경의 고유한 장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는 고대 히브리 시문에 사용된 세 가지 두드러진 수사기법을 이미지, 평행법, 생략법으로 정의하는 가운데 구약 수사 비평의 바람직한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김진규, “구약 수사 비평의 새로운 연구 방향 모색”, 『구약논단』 제58집 (2015월 12월), 167-208.

위주로 눈에 띈다.<sup>2</sup> 이는 ‘부분들 간의 평행법’(Parallelismus membrorum)이라는 이름 아래 평행법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흔히들 인식하고 있다.<sup>3</sup> 그런데 사실 평행법은 반절 단위 간의 상응으로 한정되지 않음을 여러 학자들이 이미 연구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두 이합체(acrostic) 시편인 119편과 145편에서는 반절 단위의 평행법 외에도 절(verse) 단위의 행들이 상응하는 평행법 진행이 비교적 유연한 범주에서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평행법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이 행(line)의 범주를 단순히 반절 단위 위주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시편 119편과 145편에 관해 학자들이 수행한 연구 중 일부는 반절을 넘어선 절들 사이의 평행법을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편에서 명백하고도 주요한 특징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 자체가 두 시편의 의미를 담아내는 동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지 못했다.

119편과 더불어 시편 145편은 같은 시편집 제 5권에 속한다. 또한 145편은 여덟 절 단위의 알파벳순의 이합체 시인 119편보다는 작은 규

2 히브리 시문에서 대개 한 절은 두 마디(이중 콜론, bicolon) 위주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세 마디(삼중 콜론, tricolon)로 된 절들 또한 나타난다.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김정훈 외 3인 옮김) (서울: 대한성서공회성경원문연구소, 2020), 5. 원제는 Alexander Achilles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3 일찍이 로우스(Lowth)는 동의 평행법, 반의 평행법, 종합 평행법이라는 구분 가운데 평행법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로우스도 평행법은 반절 단위로만 한정된다고 보지 않았음을 그의 연구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 이사야서에 관한 논문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절이나 행이 또 다른 절이나 행과 상응하는 것을 나는 평행법이라고 부른다.” 또한 그는 “또 다른 수준(the different degrees)”에서 평행법이 관찰될 수 있음을 말한다. Robert, Lowth, *Isaiah. A New Translation with a Preliminary Dissertation and Notes* (Cambridge: James Munroe And Company, 1834), ix-xi; 히브리 시문에서 절은 말 그대로 마소라 본문 가운데 구분되어 있는 절의 단위를 지칭한다. 콜론은 절을 소분하는 하위 분절단위로서 한 절은 보통 이중 콜론으로 이루어지며 간혹 삼분절 단위의 삼중 콜론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콜론 구분에 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평행법에서 행은 비교적 유연한 범주의 개념으로서 콜론 혹은 반절, 한 절 또는 그 외의 경우와 일치될 수도 있다. 학자들에 따라 행에 대한 입장이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로우스의 “한 절이나 행”이라는 평행법 구성단위에 대한 유연한 언급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이지만 한 절 단위의 같은 이합체 시이며,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19편과 145편에서 나타나는 절 단위 평행법적 현상을 비교하는 본 연구는 절 단위 평행법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반절 단위 평행법 위주로 이해되는 평행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에 기여할 수 있다. 시편 119편과 145편에서 나타나는 평행법은 반절 단위의 상응과 더불어서 그 이상의 범주로서 절 단위에서도 상응 관계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본문 가운데 살펴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평행법적 진행 자체가 동적 구조를 형성하면서 중요한 의미 맥락을 담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본 논문은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 가운데 사상의 흐름이 역동하는 움직임 혹은 운동이 두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역동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관찰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절 단위 평행법에 대한 논의

콰스터(D. F. B. Köster)는 마디들 간의 평행법(parallelismus der Glieder)이 절을 구성하듯 절들 간의 평행법(Parallelismus der Verse)이 연(Strophe)을 구성하고 있음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sup>4</sup> 콰스터는 그의 시편 연구서 *Die Psalmen* 서문에서 ‘마디들 간의 평행법’을 절을 구성하는 ‘절의 평행법’(Parallelismus des Verses)으로 지칭하는 한편, ‘절들 간의 평행법’(Parallelismus der Verse)을 연을 구성하는 ‘연의 평행법’(Parallelismus der

---

4 콰스터의 시편 연구서 서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체 시편을 분석하는 그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라. 그의 주된 관심은 절의 상위 단락으로서 연(Strophe)의 구분에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연의 구분보다는 그에 의해 언급되었던바, 절과 절 사이에 나타나는 본문 현상으로서 절 사이의 평행법에 대한 것으로 그 논의를 한정한다. D. F. B. Köster, *Die Psalmen* (Königsberger: Bornträger, 1837), 서문 16-24.

Strophe)으로 명명한 바 있다.<sup>5</sup> 두 반절들 사이의 대구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보다 더 큰 단위에서의 평행법적 진행에 대해 용어를 정의하고 구분을 내린 그의 기여는 ‘마디들 간의 평행법’이 히브리 시문에서 나타나는 평행법의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후펠트(H. Hupfeld)는 평행법에 대하여 사고과정(Gedankengang)이 물결을 형성하듯 리듬을 가지는 가운데 소위 ‘사유의 리듬’(Gedankenrhythmus)으로서 나타나는데, 이 평행법의 정점에는 어떤 생각이나 문장이 있으며 이를 둘러싸는 외적 리듬의 현상이 평행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sup>6</sup> 후펠트는 소위, ‘짜절’(Verspare), ‘두 개의 짜절’(Doppel-Verspare)이라는 용어들을 활용하여 절 내의 평행법 현상과 별개로 나타나고 있는 반절보다 더 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절 단위 상응의 리듬 현상에 대해 주목하였다.<sup>7</sup> 이러한 후펠트의 연구는 룩트(Pieter van der Lugt) 등의 학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는바, 퀴스터의 절들이 구성하는 연의 연구를 잘 드러내어 주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반절 단위 이상의 보통 두 절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응관계의 운율 방식(dipodic pattern)을 관찰해 내었다.<sup>8</sup>

몰턴(R. G. Moulton)은 시의 형식들에 대해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의 분석에 따르면 평행법은 다만 기교적인 측면의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문헌의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어서 성서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평행법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sup>9</sup> 그에 따르면 미시적

5 퀴스터가 일컫는 ‘마디들 간의 평행법’은 기본적으로 반절 단위로 상응하는 ‘절 내’ 평행법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윗글, 서문 17.

6 후펠트는 고대 히브리 시문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목할 현상은 리듬을 형성하는 평행법적 진행에 있다고 여겼다. H. Hupfeld, *Die Psalmen Erster Band* (Gotha: F.A. Perthes, 1867), 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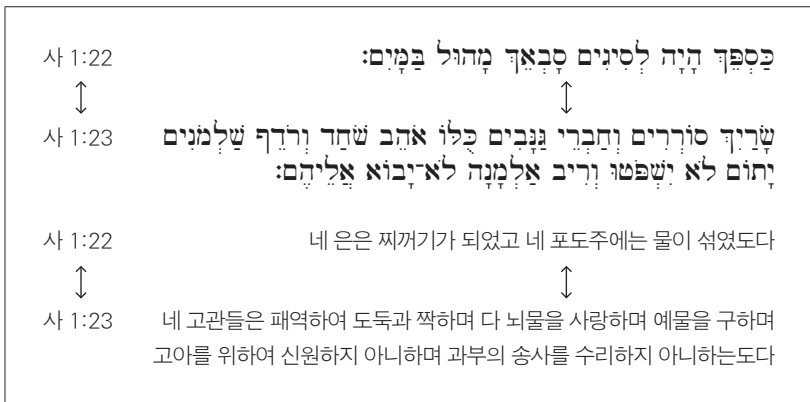
7 윗글 26-31.

8 Pieter van der Lugt, *Cantos and strophes in Biblical Hebrew poetry 1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irst book of the Psalter* (Oudtestamentische studien53; Leiden: Brill, 2006), 7.

9 Richard G. Moulton, *The Literary Study of the Bible* (Boston: D.C. Heath & co., 1899), 64.

관점에서 평행법은 리듬을 형성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평행법은 해석과 관련됨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평행법의 범주를 때로 절 내에서의 마디들 간의 상응으로 제한하지 않고 여러 절들로 이루어진 상위의 구조로까지 확장하여 이해하였으나 절들의 평행법에 대해 별도로 분석하거나 다루지는 않았다.<sup>10</sup>

헴펠(J. Hempel)은 구약 히브리 본문 전통이 헬레니즘 시대 유대교 문헌에 끼친 영향사를 통시적으로 연구했던 학자로서, 고대 히브리 본문들 가운데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표현법으로 평행법을 말한다.<sup>11</sup> 그는 ‘비유적 평행법’(Parabolischer Parallelismu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한 절과 다음 절 사이에 서로 심상들(Bilder) 간의 평행이 이루어지면서 두 절이 서로 녹아들면서 평행법적 구조를 형성하는 본문 현상을 언급한 바 있다.<sup>12</sup>



10 윗글, 64-73.

11 J. Hempel, *Die althebräische Literatur und ihr hellenistisch-jüdisches Nachleben* (Wildpark-Potsdam: Akademische Verlagsgesellschaft Athenaion, 1930), 65.

12 윗글, 65.

예를 들어 위의 이사야 1장 22절 이하에서 비유적 평행법은 예언자가 환상 가운데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22절에서는 순도를 잃은 은, 물과 혼합되어 맛을 상실한 포도주를 언급하면서 그 본래적 가치를 상실해버린 두 가지 사물의 심상을 그려낸다. 뒤이은 23절은 본래적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은 쾌역한 고관들의 모습을 구체적 현실 가운데 장면들을 묘사한다. 이를 통해 23절의 고관들은 22절의 본래 기능과 가치를 상실한 사물들과 자연스럽게 중첩된다. 이처럼 이사야 1장 22절 이하의 예언에서의 심상과 현실에서의 적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비유적 평행법의 또 다른 예로는 호세아 7장 11절, 예레미야 4장 31절 등이 있다.<sup>13</sup>

그 외에도 쉐켈(Luis Alonso Schökel) 같은 학자는 자료 비평이 주류를 이루고 고대 히브리 시문법 연구가 주목과 인정을 받기 이전 비주류의 시기에 오랜 시간을 천착하여 고대 히브리 시문의 문학적 기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는 평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제시하는 여러 본문들 가운데 별도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이미 절이 행을 이루면서 절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평행법의 다양한 사례들을 일반적 평행법의 범주 내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sup>14</sup>

왓슨(G. E. Watson)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책들 가운데 히브리 절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평행법적인 현상으로서 반행 평행법(half-line

13 험펠의 여러 예시들 가운데서 절들 사이의 평행법과 반절들 사이의 평행법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같은 범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윗글, 65.

14 쉐켈은 1957년에 작성하고 1963년에 스페인어권에서 출판한 그의 학위논문 *Estudios de poética hebrea*에서 다루었던 고대 히브리 시문의 문학적 기법에 관한 논의를 30여년 후 1987년 *Manual de Poética Hebrea*에서 재정리 작업 및 마무리하여 1988년 영역본으로 출간하였다. 쉐켈의 글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Luis Alonso Schökel, *Estudios de poética hebrea* (Barcelona: Juan Flors, 1963), 1-536; Luis Alonso Schökel, *A Manual of Hebrew Poetics* (subsidia biblica-11;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88), 1-228. 원제는 *Manual de Poética Hebrea* (Madrid: Ediciones Cristiandad, 1987).

parallelism)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아카드어에서 그 용례가 나타나는 만큼 고전 히브리어의 절 가운데서도 내적 평행법(internal parallelism)에 기반한 행의 흐름이 본문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행법은 우가리트어에서도 중요한 현상이다.<sup>15</sup>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우가리트 시문에서의 평행법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히브리 시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평행법의 경향성으로서 행이 꽤 길어지는 현상을 언급한 바 있다.<sup>16</sup> 그가 언급한 여러 예문들 중 시편 129편 1-2절은 다음과 같다.

시 129:1	רַבַּת צָרָרוֹנִי מִנְעוּרֵי יִמְרֵי-נָא יִשְׂרָאֵל:
↕	↕
시 129:1	רַבַּת צָרָרוֹנִי מִנְעוּרֵי יִמְרֵי-נָא יִשְׂרָאֵל:
시 129: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	
사 1:23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시편 129편 1절과 2절 앞부분에서 각각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일치하는 가운데 각각의 뒷부분은 자유로운 개별 진술로 나아가는 형태로 두 절이 절 단위 평행법을 나타내고 있다. 왓슨은 이러한 히브리 시문의 평행법이 우가리트 평행법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한다.<sup>17</sup> 두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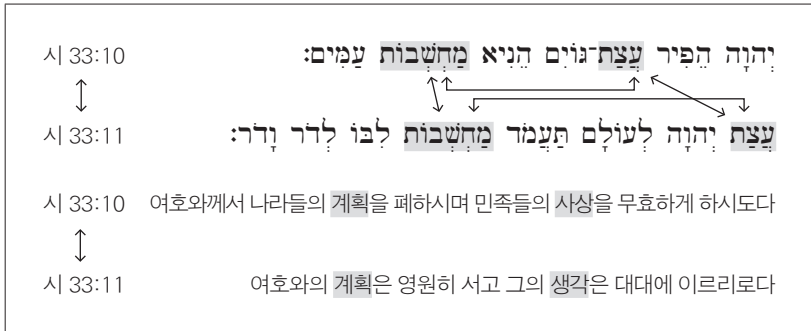
15 왓슨은 두 반행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평행법을 내적 평행법으로 명명한다. Wilfred G. E. Watson, “Internal or half-line parallelism in classical Hebrew again”, *Vetus Testamentum* Jan., 1989, Vol. 39, Fasc. 1 (Jan., 1989), 44-66.

16 Wilfred G.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vol.2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c1995), 153.

17 Watson, *윗글* (1995), 153.

사이에 상응하는 요소를 가지는 가운데 각각 고유의 진술을 함으로써 1절을 넘어서서 형성되는 2절의 의미 맥락, 1절의 토대위에 쌓여지는 2절의 의미 맥락을 볼 수 있다. 이는 평행법에 대한 쿠겔의 유명한 해석적 틀로서 “A is so, and what’s more B”라는 명제를 떠올리게 한다.<sup>18</sup>

벌린(A. Berlin) 역시도 그의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에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반절 단위로 나타나고 있는 평행법의 특징 가운데서도 반절 단위를 넘어서는 절 단위 평행법의 본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여러 예시들 가운데 드러낸다.<sup>19</sup> 그가 동일한 평행법 안에서 두 차원의 패턴이 각각 나타나는 가능성을 말하면서 aabb와 abab의 패턴의 중첩을 설명하고 있는 시편 33편 10-11절 예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sup>20</sup>



18 쿠겔의 명제를 절 단위 평행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에 대입한다면 1절이 A행, 2절이 B행에 해당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히브리어 평행법의 특징으로서 두 행 사이의 리듬감을 넘어서는 역동적 의미 단락이 기계적인 1+1을 넘어서서 형성된다. 쿠겔의 평행법 분석 틀에 대한 개관은 다음을 참조하라. James L.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1-58.

19 Adele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1985), 1-141.

20 윗글, 83-84.



10절에서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이 내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동시에 11절의 여호와와의 계획과 그의 생각에 대해서도 절 단위로 평행을 이루는 구조를 갖는다. 다시금 11절 자체만으로도 여호와와의 계획과 그의 생각이 내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두 절 사이의 평행구조에 대해 벌린은 의미론적 차원으로는 aabb의 평행 패턴을, 어휘적 차원으로는 단수와 복수의 abab의 평행법적 진행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21</sup> 그의 분석을 토대로 살펴볼 때에 이 시편 33편 10-11절은 반절 단위의 내적 평행법과 절 단위들 사이의 외적 평행법이 동시에 성립되고 있는 본문으로 볼 수 있다.

룩트는 연의 구분에 대한 연구 가운데 두 개의 마디(이중 콜론, bicolon) 수준을 넘어서는 단어의 반복 패턴을 주목하였으며, 이는 외적 평행법(external parallelism)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sup>22</sup> 그러나 그의 주된 관심은 외적 평행법 현상 자체보다는 연의 구분을 위한 경계를 찾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에 있었다.<sup>23</sup> 콕스터의 연구를 수용하는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절들 사이에서의 평행법은 매우 엄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절들 또한 연들을 구성할 수 있다.<sup>24</sup> 따라서 그는 자신의 방법론에 따라 연의 구분과 관련되는 경우 상응어로서 어휘의 반복에 주목하는 정도로 다룬다. 룩트는 연의 정

21 윗글, 83-84.

22 Lugt, 윗글, 53.

23 두 마디(이중 콜론) 수준을 넘어서는 단어의 반복 패턴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외적 평행법”이라는 룩트의 표현은 “반행 단위로 나타나는 내적 평행법”이라는 왓슨의 분류와 그 구분기준에 있어서 대조적으로 상응하는 용어표현으로 볼 수 있다. 알렌(Allen) 또한 시편 145편에 대한 그의 주석 가운데 “145편 6절에서는 내적 평행법과 외적 평행법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용어 선택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Leslie C. Allen, *Psalms 101-1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21; Dallas, Texas: Word Books, 1983), 294.

24 Lugt, 윗글, 5.

형화된 구조를 분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전환 표지(transition marker)와 동사의 반복(verbal repetition)”이다.<sup>25</sup>

이처럼 두 마디 반절 단위로 이루어지는 평행법이 주류로 인식되는 가운데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명백한 본문 현상으로서 절 단위 평행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관찰되고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반절 단위를 넘어서는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은 때로는 ‘연의 평행법’, 때로는 ‘절들의 평행법’, 혹은 ‘외적 평행법’으로 체계적인 용어 정리 없이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일컬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반절 단위를 넘어서는 평행법은 주로 절들의 상위 단락으로서 연의 경계를 구분하는 관심 위주로 다루어지면서, 절 단위 평행법이라는 본문 현상 자체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연구사 가운데 확인하였다.

### 3. 시편 119편과 절 단위 평행법

시편 119편의 본문 구조는 다면적으로 나타난다.<sup>26</sup> 22개의 알파벳순의 이합체 시를 이루는 119편은 각 알파벳마다 여덟 절씩 동일한 알파벳으로 절을 시작한다. 또한 각 절은 거의 기본적으로 소위 ‘토라 상응어’가 2인칭 남성 단수 대명 접미어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벌린에 의해서 분석된바, 평행법을 이루는 필수 요소인

25 윗글, 53.

26 시편 119편과 145편의 평행법적 진행을 다루기 위해 본 논문의 한정된 지면 관계상 시편 119편에서 나타나는 구조와 평행법적 진행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임성권, 윗글 (2021), 1-388; 임성권, 윗글 (2023), 145-159.

등가적 요소로서 작동한다.<sup>27</sup> 서두의 알파벳이 동일하게 여덟 절씩 반복되는 가운데 토라 상응어를 중심으로 동사들이 전개되는 형태가 반복된다. 의미론적 차원에서 화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동사의 주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사의 목적어로 나타난다. 또한 의미론적으로 각 절들은 화자의 하나님을 향하는 간구이자 의지 표명의 발화들로서 ‘토라 상응어’를 내포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의미 맥락들을 누적시킨다. 이는 기본적으로 절 단위 평행법의 형식을 비교적 유연한 범주에서 취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행법적 본문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후펠트는 이합체 시들을 분석한 그의 연구 가운데, 반절 단위의 이합체 시인 111, 112편, 한절 단위의 이합체 시인 25, 34, 145편, 짝절 단위의 이합체 시인 9-10편, 37편과 비교하여 시편 119편에 대해서 각각 그 자체가 여덟 절들로 구성된 연들로 이루어진 형태라고 언급함으로써 시편 119편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단위로서 연과 연을 구성하는 절의 단위를 주목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sup>28</sup>

여덟 절 단위가 한 연을 이루는 이합체 시로서 시편 119편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이라는 본문 현상에 대하여, 쿠젤이 제시했던 평행법 해석의 틀인 “A is so, and what’s more B”는 “A is so, and what’s more B, and C…”의 형태로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sup>29</sup>

27 벌린에 따르면 상응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학적 차원에서 동등한 요소들의 반복이나 대체(substitution)와 관련이 있고, 등가(equivalence), 그리고 그에 맞대응하는 반대 또는 대조의 개념들이며, 그 중 이러한 언어학적 등가들은 평행법이라 일컫는 현상을 구성한다. Berlin, 윗글 (1985), 1-3.

28 H. Hupfeld, *Die Psalmen Erster Band* (Gotha: F.A. Perthes, 1867), 31.

29 쿠젤은 이미 그의 연구서 *The idea of biblical poetry* 에서 로우스(Lowth)에 의해 협의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한정되어진 평행법의 제한적 정의에 대해 반기를 드는 가운데 모든 평행법은 진정한 의미에서 종합적(synthetic)이며 세 가지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한다. “A is so, and what’s more B, or a hundred sorts; but it is not

왓슨은 고대 히브리어 절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평행법의 특징으로서 우가릿어 절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아카드어 절들에서의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한 ‘군집’(cluster)을 이룬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sup>30</sup> 그는 고대 히브리 평행법은 두 줄기(runs of two), 세 줄기, 네 줄기, 다섯 줄기의 부류, 그리고 몇몇은 더 긴 줄기들로 진행되는 흐름이 있다고 정의한다.<sup>31</sup> 평행법은 단순한 A와 B의 상응을 넘어서서 단순한 기계적인 둘의 합을 넘어서는 역동적 의미 통합이 이루어진다. 시편 119편은 이러한 176절(22연×8절=176)이라는 거대한 절들의 누적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가운데 각 절들은 반복되는 듯하나 같은 구절이 하나도 없고, 다른 듯하나 같은 줄기의 의미 맥락을 누적, 퇴적,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 주제를 하나로 집약하면 הַיְהוָה! תּוֹרַת אֲדוֹנָי(토라트 아도나이/주님의 가르침),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신뢰, 사랑으로 압축되며, 이러한 본 시편의 주제는 매우 독특하게도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의 누적과 중첩을 통하여 그 의미 맥락을 선명하게 드러낸다.<sup>32</sup>

---

three.” James L. Kugel, *유태어*, 57-58.

30 Wilfred G. E. Watson, “Internal Parallelism in Classical Hebrew Verse”, *Biblica*, 1985, Vol. 66, No. 3 (1985), 375-382.

31 유태어, 375-379.

32 시편 119편에서 나타나는 הַיְהוָה! תּוֹרַת אֲדוֹנָי(토라트 아도나이/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여덟 개의 상응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학위 논문을 참조하라. דַּבָּר(다바르/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용례 빈도수 면에서 24회 나타남으로써 25회 사용된 הַיְהוָה(토라/가르침)와 더불어 가장 두드러지는 가운데 시편 119편에서 중심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임성권, *유태어* (2021), 116-117.

## 4. 시편 145편과 절 단위 평행법

### 1) 시편 145편 본문의 구조에 관한 이해

구조적으로 145편은 이합체 시로서 한 절 단위로 1(눈)을 제외한 모든 알파벳으로 시작하면서 총 21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시편 145편은 전체로서의 시편집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마소라 본문으로서는 마지막으로 표제어를 통해 다윗에게 속하는 시편으로서 뒤이어 나오는 146-150편은 전체 시편집을 마무리하는 할렐루야 시편 소집특음을 볼 때 실질적으로 제5권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시편이다.<sup>33</sup>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찬양이 중요한 중심에 놓여있는 시편 145편은 오늘날 유대교 기도서에서는 주중의 오후 기도문, 대속죄일의 오후 기도문으로 사용된다고 하며, 1-2절, 11-13절, 21절에서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곧 왕적 다스림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15-16절에서 양식에 대한 간구, 8, 14, 18-20절에서 용서에 대한 간구와 유혹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간구가 주기

---

33 표제어를 통해 시편 145편은 왕으로서 화자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마지막 다윗 시편으로 자리매김 한다. 시편을 간직하는 공동체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과거의 역사적 인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시편의 화자로서 시인의 전형이 되며 시편 독자들의 모범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하경택, “시온으로서의 다윗: 세 충위를 가진 시편으로서 시편 51편 읽기”, 『구약논단』 제29집 (2023년 12월), 407-436; 다만 칠십인경에서는 시편 151편에서 다윗이 다시금 표제어 가운데 언급된다. 이 시편은 마소라 본문에는 해당 본문이 없는 변의 시편에 해당된다. “οὗτος ὁ ψαλμὸς ἰδιόγραφος εἰς Δαυὶδ καὶ ἐξῶθεν τοῦ ἀριθμοῦ ὅτε ἐμονομάχησεν τῷ Γολιάθ.”(후토스 호 프삼모스 이디오그라포스 에이스 다위드 카이 엑소텐 투 아리뜨무 호테 에모노 마캐센 토 콜리아드/이것은 다윗에게 속한 자서전적 시편이며 변의 시편임. 골리앗을 그가 홀로 맞서 싸웠을 때)라는 표제어 가운데 다윗을 언급하면서, LXX 시편 151편은 칠십인경 시편집이 마소라 본문의 시편집보다 다윗 중심적으로 본문들의 배열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칠십인경 시편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제15집 (2009년 6월), 30-62; 김정훈, “시편 151편의 11Q5와 칠십인역 본문 자료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29집 (2023년 6월), 9-40.

도문과 상응하는 부분을 갖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편이다.<sup>34</sup>

시편 145편은 알파벳 순으로 한 절씩 나아가는 이합체 시이다. 그런데 알파벳 ׀(눈)이 생략되어 있는 채로 21개의 절들로 구성되어 있다. 키멜만(Reuven Kimelman)은 145편의 구조를 1-2절을 시작하는 전주(prelude), 10절을 간주(interlude), 21절을 끝맺는 후주(postlude)로 보는 가운데 그 사이에 네 개의 연(3-6절/7-9절/11-13절/14-20절)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sup>35</sup> 각각의 위치에서 전주, 간주, 후주로서 존재하는 절들이 ׀(바라크/송축하다)동사를 표지(marker)로서 지나는 가운데 세 기둥이 전체 구조를 떠받치는 형태이다.

반면에 왓슨은 이 시편의 기본 주제로서 영원하며 보편적인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구조로서 이합체 시의 중심에서 11-13절이 각 절 서두 알파벳 역순으로 ׀(말라크/왕으로서 다스리다)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6</sup> 주요 어휘로서 מְלֹכָה(말쿠트/왕적인 다스림)는 11-13절 세 행들에서만 네 차례 용례가 반복되어 나타나며 מֶלֶךְ(멜레크/왕)가 1절에서도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주요 어휘의 같은 어근이 이러한 방식으로 강조되면서 시의 중심부를 형성한다고 분석한다.<sup>37</sup>

벌린은 이러한 왓슨의 분석에 대해 시의 중심주제를 구조상으로도 중심부에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첨언한다.<sup>38</sup> 또한 그는 상

34 Hossfeld and Zenger, Maloney, M. Linda. Trans., *Psalms 3 A Commentary on Psalms 101-150*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603-604.

35 Reuven Kimelman, "Psalm 145: Theme, Structure, and Impac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113, no. 1, (1994), 37-38.

36 Wilfred G. E. Watson, "Reversed Rootplay in Ps 145", *Biblica*, 1981, Vol. 62, No. 1 (1981), 101-102.

37 Watson, 윗글, 101.

38 벌린은 동시에 왓슨의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합체의 역순까지 의도된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다만 이합체의 알파벳 순으로 자연스럽게 배열

응어에 해당되는 어휘들의 반복을 통하여 두 가지 자주 반복되는 사상으로서 이 시편을 반분하고 있는 바 전반부의 발화나 찬양을 말하는 동사가 지배적이라는 점과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향한 행위들이 중심사상으로서 표현된다고 분석한다.<sup>39</sup> 벌린이 말하는 바 상응어에 해당되는 어휘의 반복은 본 논문이 논하고자 하는 바,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시편 145편은 시편 119편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줄기의 사상이 평행법적 진행 가운데 하나의 줄기로 역동적으로 합류한다.<sup>40</sup>

그러나 키멜만과 왓슨의 탁월한 견해는 둘을 수정하여 수용할 때 본문의 구조 분석이 보다 힘을 얻는다. 키멜만의 분석에 따르면 간주에 해당하는 10절 부분과 왓슨에 의해 중심부로 파악된 11-13절 부분을

---

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벌린은 11, 12절에서의 מַלְכֵנו (말쿠트/왕적인 다스림)의 용례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왕권의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A. Berlin, "The Rhetoric of Psalm 145", Ann Kort and Scott Morschauer (ed.), *Biblical and Related Studies Presented to Samuel Iwry*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85), 19.

39 윗글, 18-19; 또 다른 관점에서 린다스(Barnabas Lindars)는 1절을 <멜레크>라는 중요한 어휘를 가지는 전체의 머리말로, 2절과 마지막 21절을 양끝에서 교차대칭(chiastic) 구조를 이루는 절들로 분석하는 가운데 또한 (라메드)로 시작하는 12절이 이합체 시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마소라 본문 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눈)으로 시작되는 절에 대해 쿨란 시편과 칠십인역 시편을 근거로 하여 원래 존재하였던 것이라는 가정하에 (눈) 절의 복원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Barnabas Lindars, "The Structure of Psalm CXLV", *Vetus Testamentum*, Jan. 1989, vol. 39, Fasc. 1 (Jan. 1989), 23-30; 그러나 김정원은 (눈)의 생략에 대해 미드라쉬 해석을 근거로 하여 원래 있던 본문의 소실이 아닌 신학적으로 의도된 바로서 이해한다. 김정원, "알파벳 시 145편 구조연구", 구약논집 제23집, 39-68.

40 시편 119편에는 한편으로는 연약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 의존하는 간구 형태의 어조가 주로 명령형(Imperative) 문장 혹은 저시브(Jussive) 형태의 부정 명령문의 형태로 한 줄기 큰 흐름이 형성된다면, 그와는 또다른 한 줄기 어조가 주로 청유형(Cohortative) 문장의 형태로 말씀에 대해 확정된 마음으로 선택하는 표현들이 강하게 뻗어가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시편 119편은 이러한 두 줄기의 흐름이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 가운데 역동적으로 누적과 교차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로 합류한다. 이러한 본문 현상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참조하라. 임성권, 윗글(2021), 1-388.

묶어서 이합체의 역순으로 읽으면 מלכי(말키/나의 왕)라는 구조를 형성 하면서 주체적 측면에서 מַלְכוּת(말쿠트/왕적인 다스림)가 4회, מְמוּשָׁלָה(멤살라/지배)가 1회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용어의 반복과 맞물려 의미 단락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1절에서 אֱלֹהֵי הַמֶּלֶךְ(엘로하이 하멜레크/나의 하나님 그 왕)를 언급하였던 바가 중심부 10-13절에서 מלכי(말키/나의 왕)로서 이합체의 역순 가운데 재차 선언된다.

10-13절의 역-이합체 מלכי(말키/나의 왕) 다음에 마땅히 기대되는 1(눈)에 해당되는 절이 없는 이유는 후반부로의 분위기 전환을 명확히 하기 위한 휴지(pause)의 표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반부 1-9절에서 사람을 주체로 하는 발화 동사들이 주로 나타났다면, 중심부 10-13절에서는 발화 동사들과 맞물려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의 영원성이 명사 문장의 형식으로 선포된다. 중심부 이후로 후반부 14-21절에서는 21절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주어로 하는 동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분사, 형용사, 동사의 용법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부는 찬양과 관련되어 발화 동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시인과 청자, 회중들을 주어로 하는 문장들 위주로 나타난다. 중심부에서는 ‘나의 왕’이신 주님의 מַלְכוּת(말쿠트/왕적인 다스림)와 מְמוּשָׁלָה(멤살라/지배)가 반복하여 선언된다. 기대되는 1(눈)의 생략으로 휴지(pause)를 이룬 후 후반부부터는 질적으로 인간의 다스리는 왕국 차원과는 구별되는 주님의 다스림의 효력과 행하심이 어떠함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구도로 진행된다.

후반부 14-21절 중에서 사람을 주체로 하는 동사는 단 3회 나타나면서 “소망하고” “부르짖고” “송축하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위가 어떠해야 함이 잘 드러난다. 이 세 동사는 전반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간을 주체로 하는 발화 동사들과 합류하는 가운데 찬양



의 범주를 마음 중심으로부터 소망하고 부르짖는 것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בָּרַךְ (바라크/송축하다)로 마무리한다. 이에 시편 145편은 בָּרַךְ (바라크/송축하다)와 מַלְכִי (말키/나의 왕)를 표지로 하여 이와 같은 삼분 구조로 분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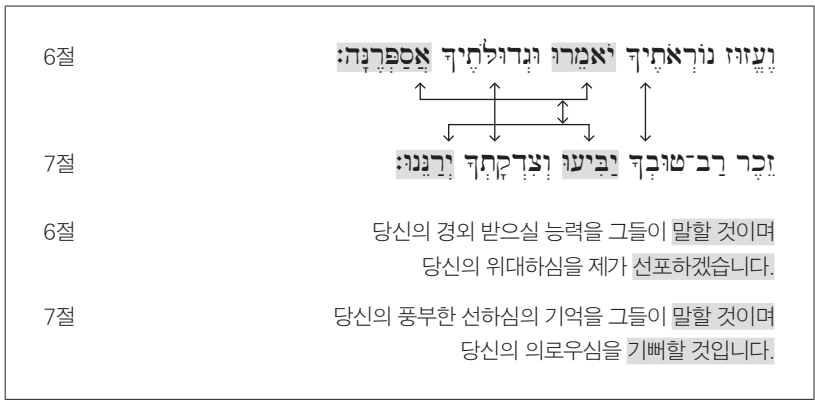
<b>전반부</b> 1-9절: 찬양에 대한 의지와 찬양으로의 부름 1-2절은 전주이자 도입부로서 בָּרַךְ (바라크/송축하다) 동사 사용
<b>중심부</b> 10-13절: 나의 왕 10절은 간주로서 בָּרַךְ (바라크/송축하다) 동사 사용 10-13절 각 첫 글자 이합체 역순으로 מַלְכִי (말키/나의 왕) 형성
<b>후반부</b> 14-21절: 찬양의 근거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구체적인 다스림의 행위 21절은 후주이자 마무리로서 בָּרַךְ (바라크/송축하다) 동사 사용

## 2) 시편 145편의 절 단위 평행법의 사례 분석

### (1) 전반부(1-9절): 찬양에 대한 의지와 찬양으로의 부름

1절	אַרְוֹמְךָ אֱלֹהֵי הַמֶּלֶךְ וְאַבְרַכְּךָ שִׁמְךָ לְעוֹלָם וָעֶד:
2절	בְּכָל־יּוֹם אֲבָרְכֶךָ וְאֶהְלֵלָה שִׁמְךָ לְעוֹלָם וָעֶד:
1절	당신을 높입니다. 나의 하나님! 왕이시여! 그리고 제가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합니다.
2절	온종일 당신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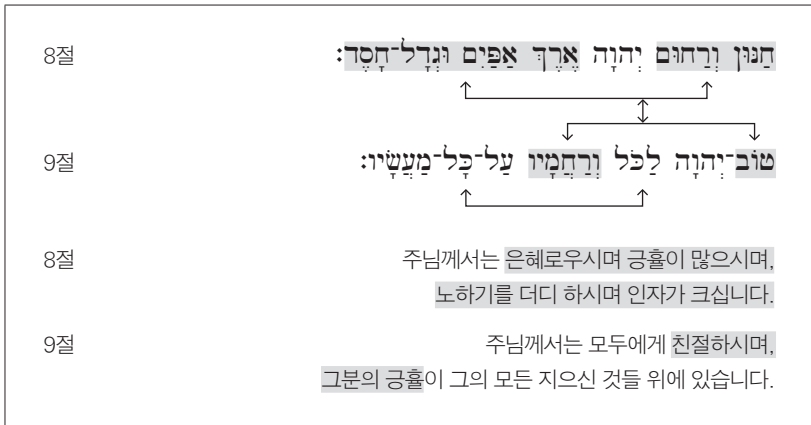
1절과 2절은 찬양에 대한 의지를 청유형(cohortative) 동사로 각각의 반절을 이루면서 내적 평행법을 형성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1절과 2절의 상반절은 각각 청유형 동사에 2인칭 남성 단수 접미어가 붙은 형태로 절과 절 사이에서 상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1절과 2절의 하반절에서도 각각 접속사와 청유형이 결합된 형태의 וַאֲבָרְכָה (바아바라카/그리고 제가 송축합니다)와 וַאֲהַלְלָהּ (바아할라/그리고 제가 찬양합니다)가 상응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절 끝에 שְׁמִי לְעוֹלָם וָעֶד (שמך 르올람 바에드/당신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가 동일하게 반복을 이루면서 구조적으로 평행을 이룬다. 이처럼 시편 145편은 도입부로부터 명확하게 절 단위 평행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내적 평행법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적 평행의 본문 현상이다.



알렌은 6절에서 내적 평행법과 외적 평행법이 동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sup>41</sup> 6절 내에서 “그들이 말할 것이며 내가 선포하겠다”는 두 개의 발화 동사가 서로 상응하면서 복수와 단수의 대비를 이루는 평행

41 Allen, 윗글, 372-381.

법적 진행이 나타난다. 그러한 가운데 다음 7절과도 2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대명 접미어가 상반절과 하반절에서 각각 서로 상응하면서 7절의 두 개의 발화 동사 “말할 것이며 기뻐할 것이다”와 더불어 외적으로 절 단위 평행법이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6-7절의 상응을 살펴봤지만 사람을 주체로 하는 발화 관련 동사를 중심으로 상응하면서 이러한 절 단위의 외적 평행법 현상은 “나의 왕,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라는 이 시편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시편 전반에 걸쳐 눈에 띄게 나타난다.



8-9절에서는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형용사 형태를 취하면서 찬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평행법적 진행으로 열거된다. 8절에서 형용사 형태로 쓰인 **רחום**(라훔/긍휼이 많은)은 9절에서 어원이 동일한 명사 형태로서 **רחמיו**(라하마브/그분의 긍휼)로 상응하면서 절 단위 평행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יהוה**(아도나이/주님) 또한 8-9절 가운데 반복되면서 상응하는 구조를 이룬다. 8절에 대해 김엘만은 출애굽기 34

장 6절의 형용어들의 열거방식을 재현하였다고 분석한다.<sup>42</sup>

벌린에 의해 잘 파악된 바로서 이 시편 145편을 양분하는 두 가지 사상 중 한 줄기는 발화 동사의 반복을 통해 나타난다.<sup>43</sup> 1-2절, 4-7절, 10-11절, 15절, 18절, 21절이 사람을 주체로 하는 발화 동사들을 상응어로서 내포하면서 의미론적으로 시편 전반에 걸쳐 한 줄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sup>44</sup> 이 한 줄기는 찬양에 대한 의지 표명, 그리고 찬양으로의 부름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이 줄기는 절 단위 평행법이 절들의 군집을 이루면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 한 줄기 흐름의 기본 단위는 이합체 시로서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각 절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벌린은 두 가지 사상이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를 반분하는 구조로 파악한다.<sup>45</sup> 그는 이러한 구조를 가능케 하고 있는 절 단위의 외적 평행법적 진행이 나타나는 본문 현상에 대해서는 주안점을 두지 않고 지나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발화 동사의 반복은 연의 구조를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절 단위 평행법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상응어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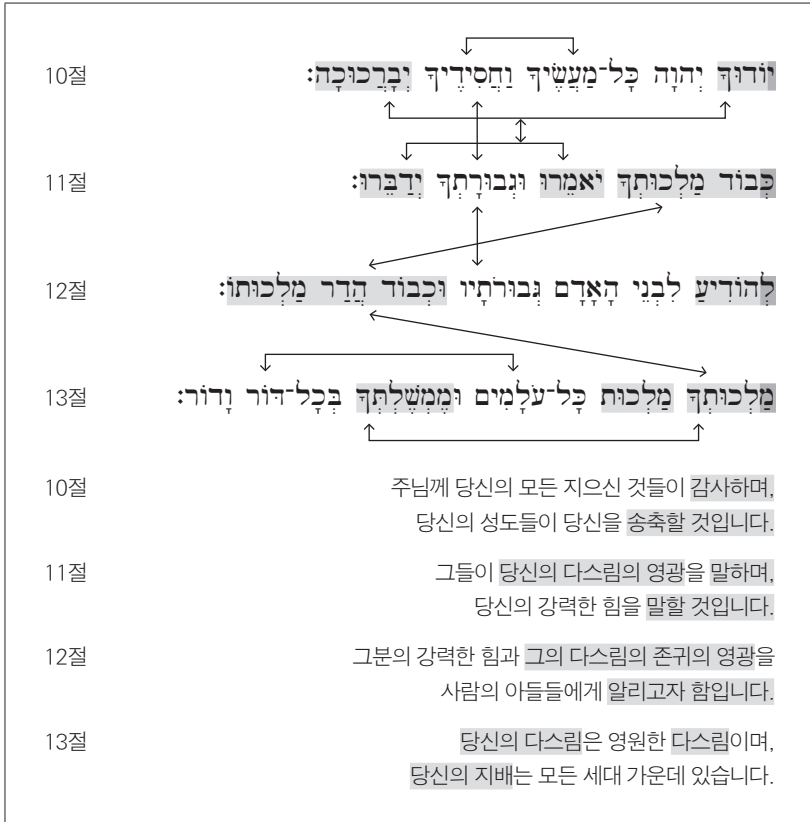
42 Kimelman, 윗글, 43.

43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강조될 뿐 아니라 그분을 향한 찬양이 표현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방식들 또한 강조된다.” A. Berlin, 윗글 (1985), 18-19.

44 벌린은 그의 연구에서 후반부에 속한 15절의 אָבִיר(사바르/소망하다)동사와 18절의 אָבִיר(카라/큰소리로 부르다) 동사를 발화 관련 동사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사람을 주체로 하는 동사로서 15절과 18절도 이 한 줄기 흐름의 군집(cluster)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주체로 하는 동사와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분사, 형용사, 동사의 두 줄기가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 가운데 군집을 이루며 때로는 교차하기도 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시편 145편에서의 찬양의 범주를 상당히 확장되도록 한다. 한편, 벌린의 분류는 다음을 참조하라. 윗글 (1985), 19.

45 벌린이 언급한 바, 시편 145편을 반분하고 있는 두 번째 주된 사상은 ‘하나님의 그 자신의 피조물들을 향하신 행하심’이다. 그의 분석은 탁월하지만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 속에서 정적인 반분 구조가 아닌 동적인 누적과 교차의 흐름이 생성됨을 볼 필요가 있다. 윗글 (198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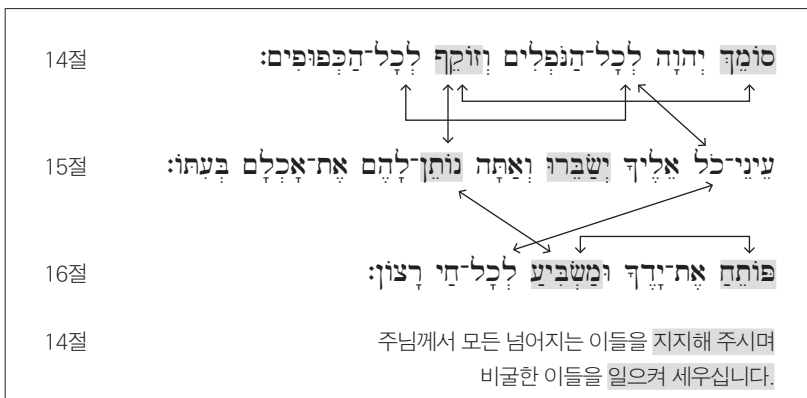
(2) 중심부(10-13절): 나의 왕



10절에서 וַחֲסִידֶיךָ(바하시테카/그리고 당신의 성도들)는 다음 11절의 וְגִבּוֹרֹתֶיךָ(우그부라트카/그리고 당신의 강력한 힘)와 더불어 접속사와 동일한 대명접미사를 취함으로써 어휘적 차원에서 발음으로 상응하며, 10절에서 “감사하며, 송축할 것이다”로 두 차례 사람을 주체로 하는 발화 동사가 나타나듯이 11절에서도 “말하며, 말할 것이다”로 두 차례 동일하게 발화 동사로서 상응하면서 두 절 사이에 절 단위 평행법이 형성됨을 볼 수 있다.

11절의 “당신의 다스림의 영광”에 대해 12절은 “주님의 다스림의 영광”으로 지칭하는 가운데 2인칭에서 3인칭으로 소유격 대명 접미사의 변화를 주면서 평행함으로써 “다스림의 영광”을 강조하는 외적 평행 구조를 이룬다. 이와 더불어 11절의 **גְּבוּרַתְךָ**(그부라트카/당신의 강력한 힘)이 12절에서 **גְּבוּרָתוֹ**(그부로타브/그분의 강력한 힘)로 상응하면서 단수와 복수, 2인칭과 3인칭의 대비 가운데 절 단위 평행법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12절의 **מְלֻכּוֹתוֹ**(말쿠토)는 13절 상반절의 **מְלֻכּוֹתֶיךָ**(말쿠트카), 13절 하반절의 **מִמְשָׁלָתְךָ**(멤셀레트카)와 어휘적으로 상응을 이루면서 절 단위 평행법의 구조를 갖게 된다. 11-13절은 **מְלֻכּוֹת**(말쿠트/왕적인 다스림)를 4회 반복하고 의미적으로 유사한 **מִמְשָׁלָה**(멤살라/지배)를 1회 상응어로서 사용하면서 왕적 다스림과 통치의 주체를 절 단위 평행법적 구조 내에서 잘 담아내고 있으며, 10절의 감사와 송축의 발화 동사에 마땅히 담길 발화의 내용을 증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로써 이 합체 역순의 **מַלְכִי**(나의 왕) 단락이 10-13절에 중심부로서 형성된다.

(3) 후반부(14-21절): 찬양의 근거로서 왕이신 하나님님의 성품과 구체적인 다스림의 행위



15절	모든 눈들이 당신을 향하여 소망할 것이며, 당신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그대에 주십니다.
16절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모든 살아있는 이들에게 호의로 만족시키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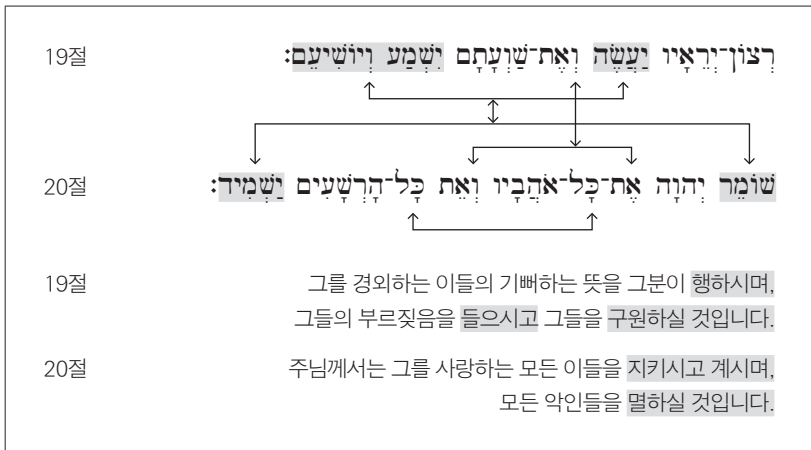
14-16절에서는 15절 전반절을 제외하고 모두 반절 단위로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분사 형태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15절 전반절의 “모든 눈들이 당신을 향하여 소망할 것입니다”라는 유일하게 사람을 주체로 하면서, 분사형태가 아닌 동사 피엘 미완료형을 취하는 반절 단위 구문이 위치하고 있다. 중심의 15절 전반절과 14-16절의 나머지 반절들의 감싸주는 이러한 구조는 매우 아름다운 구문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왕적 다스리심의 행위들과 이러한 통치를 소망하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인간의 관계성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다.

17절	צְדִיק יְהוָה בְּכֹל-דְּרָכָיו וְחֹסֵד בְּכֹל-מַעֲשָׂיו:
18절	קָרוֹב יְהוָה לְכֹל-קְרָאָיו לְכֹל אֲשֶׁר יִקְרָאֵהוּ בְּאֵמֶת:
17절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길들에 의로우시며, 모든 그의 지으신 것들에게 신실하십니다.
18절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가까우시며, 곧 진실로 그를 향하여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하십니다.

14-16절에서는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분사 형태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묘사되고 있다면, 17-18절에서는

www.kci.go.kr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형용사들이 활용되는 가운데 절 단위 평행법을 이루면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다. 17절의 **לְרִיב**(차디크/의로우시며)와 **חָסִיד**(하시드/신실하십니다)는 내적 평행법을 이루는 동시에 18절의 **קָרֹב**(카로브/가까우시며)와도 외적 평행을 이루면서 구조를 형성한다. 14-16절에서 분사형태로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어휘들이 누적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 사람을 주체로 하는 “소망하다”의 동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17-18절에서는 형용사들의 상응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주체로 하는 동사 “부르다”가 한 번 칼미완료 형태로 나타난다. “부르는 이들”로 나타나는 분사 형태는 18절 내에서 상응하면서 발화 동사의 범주의 폭을 찬양 이외의 영역으로 넓히고 있다.



19-20절은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동사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한 차례 또한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분사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수순으로 14-16절은 분사형태 위주로, 17-18절은 형용사 위주로, 19-20절은 동사 위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구체적인 행위가 열거된다. 19절 마치



막 부분의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동사는 20절 마지막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동사와 대조적으로 평행을 이루면서 절 단위 평행법의 진행을 보여준다.

이러한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의 흐름 속에서 시편 145편은 크게 두 줄기의 평행법적 군집과 교차가 “나의 왕”이라는 구조적 중심 축을 향하여 하나의 흐름으로 합류함을 볼 수 있다. 한 줄기 다양한 발화 동사를 중심으로 사람이 주체로 나타나는 절 단위 행들이 전반부에 군집을 이루며 평행법적 진행을 이루고 후반부에서도 주요 부분에 교차적으로 등장한다. 다른 한 줄기로서 다양한 분사, 형용사, 동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체로 나타나는 절 단위 행들이 후반부에 군집을 이루며 평행법적 진행을 이루고 전반부에서도 이미 일부 교차적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145편의 두 줄기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은 동적 구조를 이룬다. 곧, 정적인 연의 구분에 한정되지 않고 두 줄기의 진행이 군집과 교차 가운데 중심부의 “나의 왕”을 중심축으로 하나의 시편으로서의 흐름을 이루면서 역동적 의미의 구조를 형성함을 볼 수 있다.

## 5. 나가는 말

그동안 절 내에서 반절 단위 위주로 상응하는 평행법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절 단위 평행법에 대한 연구 또한 학자들이 다루어 온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반절 단위의 평행법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 시편 119편과 145편에서 나타나는 평행법은 반절 단위의 상응과 더불어서 그 이상의 범주로서 절 단위에서도 상응 관계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음을 사례들을 분석하며 살펴보았다. 콤프스터로부터 룩트에 이르기까지 절 내에서의 평행법을 넘어서는 단위에

www.kci.go.kr

서의 상응관계를 살피는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로 상위 단락으로서 연을 구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상응어로서 어휘의 반복과 전환의 표지를 주목하는 연의 구분과 경계를 나누는 것에 대한 관심 아래 절 단위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외적 평행법은 본문 현상 자체로서는 내적 평행법 현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나기에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시편 119편과 145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본문 현상으로서 절 단위 평행법은 알파벳순 이합체 시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다른 시편들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편 119편에서는 연약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 의존하는 간구 형태의 어조가 명령형 문장 혹은 저시브 형태의 부정 명령문의 형태로 한 줄기 큰 흐름이 형성된다면, 그와는 또 다른 한 줄기 어조가 말씀에 대해 확정된 마음의 강하게 뻗어가는 표현들이 청유형 문장의 형태 위주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 두 줄기 흐름이 비교적 유연한 범주에서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 가운데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움직임 혹은 운동이 시편 119편에서 나타난다면, 시편 145편에서도 두 줄기 사상의 흐름이 절 단위 평행법적 진행 가운데 정적이지만은 않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고자 모든 육체를 부르고 있는 145편은 전체 구조상으로 크게는 찬양으로의 부름을 주제로 하면서 발화 동사들이 상응어로서 반복되는 전반부와 찬양의 근거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분사, 형용사, 동사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후반부로 구분된다. 그러나 전반부 3, 8-9절에서 이미 발화 동사 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서 후반부의 주제가 선입되어 있고, 후반부 15, 18, 21절에서도 사람을 주체로 하는 동사가 삽입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본문 현상은 정적인 연의 구조라는 시각에 더해

145편 내에서 절 단위 평행법이 의미론적으로 크게 두 줄기로 교차하면서 동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단순히 연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변화의 표지로서나, 동사나 어휘의 반복에 한정된 관심을 넘어서서 절 단위 평행법적 현상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두 줄기가 합류하는 집약된 흐름의 언어 현상이자 선포로서의 시편 119편과 145편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접근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정형화된 연이라는 정적인 구조 안에 시편의 역동성을 가두지 않고 기계적이고 고정적인 연의 구분이 아닌 두 시편의 동적 움직임에 이해하도록 돕는다. 구약의 여러 본문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본문 현상으로서 ‘절 단위 평행법’은 이전보다 좀 더 주목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정원, “알파벳 시 145편 구조연구”, 『구약논집』 제23집 (2022년), 39-68.
- 김정훈, “시편 151편의 11Q5와 칠십인역 본문 자료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29집 (2023년 6월), 9-40.
- 김진규, “구약 수사 비평의 새로운 연구 방향 모색”, 『구약논단』 제21집 (2015년 12월), 167-208.
-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제15집 (2009년 6월), 30-62.
- 임성권, “시편 119편에 대한 평행법적 의미 해석: <토라트 아도나이>가 이끄는 경건의 길.” 미간행신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21.
- \_\_\_\_\_, “[나의 박사 논문을 말한다] 시편 119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가갈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장엄한 기도”, 『기독교사상』 vol.778 (2023년 10월), 145-159.
- 하경택, “시운으로서의 다윗: 세 층위를 가진 시편으로서 시편 51편 읽기”, 『구약논단』 제29집 (2023년 12월), 407-436.
-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김정훈 외 3인 옮김), (서울: 대한성서공회성경원문연구소, 2020). 원저 Fischer, Alexander

- Achilles,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 Allen, Leslie C., *Psalms 101-1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21; Dallas, Texas: Word Books, 1983).
- Berlin, Adele,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1985ㄱ).
- \_\_\_\_\_, “The Rhetoric of Psalm 145”, Ann Kort and Scott Morschauer(ed.), *Biblical and Related Studies Presented to Samuel Iwry*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85ㄴ), 17-22.
- Hossfeld, Frank-Lothar and Zenger, Erich, *Psalm 3 A Commentary on Psalms 101-150* (Maloney, M. Linda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 Hupfeld, H., *Die Psalmen Erster Band* (Gotha: F.A. Perthes, 1867).
- Kimelman, Reuven, “Psalm 145: Theme, Structure, and Impac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113, no. 1 (1994), 37-58.
- Köster, D. F. B., *Die Psalmen* (Königsberger: Borntrager, 1837).
- Kugel, James 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 Lindars, Barnabas, “The Structure of Psalm CXLV”, *Vetus Testamentum*, vol. 39, Fasc. 1 (Jan, 1989), 23-30.
- Lowth, Robert, *Isaiah. A New Translation with a Preliminary Dissertation and Notes* (Cambridge: James Munroe And Company, 1834).
- Lugt, Pieter van der, *Cantos and strophes in Biblical Hebrew poetry 1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irst book of the Psalter* (Oudtestamentische studien53; Leiden: Brill, 2006).
- Moulton, Richard G., *The Literary Study of the Bible* (Boston: D.C. Heath & co., 1899).
- Schökel, Luis Alonso, *Estudios de poética hebrea* (Barcelona: Juan Flors, 1963).
- \_\_\_\_\_, *A Manual of Hebrew Poetics* (subsida biblica-11;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88). 원제 *Manual de Poética Hebrea* (Madrid: Ediciones Cristiandad, 1987).
- Watson, Wilfred G.E.,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vol.2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_\_\_\_\_, “Reversed Rootplay in Ps 145”, *Biblica*, Vol. 62, No. 1(1981), 101-102.

- \_\_\_\_\_, “Internal Parallelism in Classical Hebrew Verse”, *Biblica*, Vol. 66, No. 3(1985), 375-382.
- \_\_\_\_\_, “Internal or half-line parallelism in classical Hebrew again”, *Vetus Testamentum* Vol. 39, Fasc. 1 (Jan., 1989), 44-66.

검색어

히브리 시문 분석, 절 단위 평행법, 알파벳순 이합체 시, 시편 119편, 시편 145편, 동적 구조

[ ABSTRACT ]

## A Comparative Study on Psalms 119 and 145 Focusing on Parallelism

Sung-Kwon Y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and develop the discussion of the phenomenon of parallelism in Psalm 145, as demonstrated among its verses, in light of the author's dissertation on Psalm 119, "The Exegesis of Psalm 119 based on the Analysis of Parallelism – The Path of Piety led by *tôrât-jhwûb*: An Antagonistic Pendulum Movement." This paper briefly describes the parallelism in Psalm 119 and mainly focuses on the cases of 'verse-level' parallelism shown in Psalm 145.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plores the literary features, focusing on parallelism, a common way of expression in ancient Hebrew poetry. In Hebrew poetry, a line is a unit of parallelism and is usually in a half-verse unit. However the parallelism among verses is prominently shown in Psalms 119 and 145, which are alphabetic acrostic psalms. Although many scholars who studied parallelism did not simply limit the line to the half-verse, studies on Psalms 119 and 145 were mainly focused on the structure and division of strophe or stanza rather than the verse-unit parallelism itself.

Along with Psalm 119, Psalm 145 belongs to the fifth book of the Psalms. Although Psalm 145 is smaller in scale than Psalm 119, it is also an alphabetic acrostic psalm, and the progression of verse-level parallelism

www.kci.go.kr

is also prominent. In Psalm 145, the verse-level parallelism sometimes forms clusters and is sometimes crossed over, just like in Psalm 119. It forms a dynamic semantic flow of poetry that is not limited to a static structure as a strophe or a stanza.

This study, which compares the dynamics of parallelism in Psalms 119 and 145, can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phenomenon of verse-level parallelism and broadening the understanding of parallelism, which has been mainly understood as half-verse-level parallelism.

key words

Hebrew poetry analysis, external parallelism, alphabetical acrostic psalm, Psalm 119, Psalm 145, dynamic semantic flow

투고일: 2024년 10월 15일

심사일: 2024년 11월 13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2월 02일

www.kci.go.kr